



孫 당 개혁으로 돌파구 文 야권통합 입지 확보



野 대권주자 양강 구도 손학규-문재인 그들의 정치 섹범은?

야권의 대선 구도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 이사장의 양강구도로 형성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며 문 이사장은 야권통합을 명분으로 보다 활발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와 문 이사장의 양강구도가 야권의 대선 판을 키우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독주 체제의 대선 구도를 뒤흔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에 일회일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선 이장기 레이스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며 긴 호흡으로 정국을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나흘 간의 휴가에서 복귀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5일 민생, 야권통합, 당내 혁신

을 향후 정치행보의 화두로 던졌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평범한 주제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야권통합과 개혁 공천 등에서 손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손 대표가 이날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하고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통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조만간 야권통합을 위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부분은 당내 혁신이다. 당내 혁신이라고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새로운 인물을 민주당에 수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는 당내 인재 영입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해 본인이 직접 나설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득표를 최소화하는 공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뒷받침 호남에서부터 공천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손 대표가 장기적 안목에서의 리더십 강화에 나서고 있다면 문 이사장은 야권통합을 명분으로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등과 함께 통합추진 모임에 참석하며 정치적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야권대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연합정당론'을 제시하는가 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야권대통합을 위한 전대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특히, 문 이사장이 조만간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이사장이 당내 야권통합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야권 통합에서 성과를 내고 활로를 확보하는 것이 문 이사장의 정치적 입지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이사장이 야권 통합 과정에서 역할을 한 뒤 내년 총선에서 부산 등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 '바람'을 일으킬 경우 '대망론'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을 승계한 상징적 인물이지만 개인적인 정치적 자산은 '정치인 같지 않은 신인물'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대권주자로 떠오를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상당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을 중심으로 범 현대가 그룹사들이 사재를 출연해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재단인 '아산나눔재단'을 만들기로 한 16일 서울 현대중공업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진욱 설립위원장을 비롯한 그룹회장단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 현대가 5000억 규모 '아산나눔재단'

정몽준 의원 2000억 등 오너일가 사재 대거 출연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을 제외한 범 현대가 그룹사들이 한데 모쳐 50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재단을 만든다.

현대중공업그룹과 KCC, 현대해상,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 범 현대가 그룹사 사장단은 16일 오전 현대중공업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사회복지재단인 '아산나눔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아산나눔재단의 설립기금은 총 5000억원으로, 현대중공업그룹 6개사가 2380억원을 출연하고, KCC 150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 100억원, 현대백화점 50억원, 현대산업개발 50억원, 현대중합금속 30억원 등 나머지 범현대가 기업들이 380억원을 출연한다.

특히, 정몽준 의원이 현금 300억원과 주식 17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출연하고, 창업자 가족들도 사재 240억원을 출연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대권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 측은 16일 "이번 재단 설립과 대권행보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선친인 고(故) 정주영 전 회장의 10주기를 뜻깊게 기리는 동시에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직업'이라는 소신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야권통합 변수... 민주 전대 룰 개정 주춤

12월이나 내년 1월이나... 시기 싸고 당내 논란 증폭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와 내년 총·대선 경선을 개정 작업이 야권 통합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야권이 참여하는 통합 전대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 통합작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때문이다. 즉, 민주당이 통합 전대를 준비하려고 해도 다른 야권의 부정적 태도로 추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민주당만의 전대를 치르려고 할 경우 다른 야당들로부터 "통합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같이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민주당이 통합 논의를 위한 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어 있기 때문이다.

야권 모두 양대 선거 승리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은 통합이 아직 선거연대를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다른 야당들은 선거연대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에 매달리고 있다. 물론 민주당은 여전히 통합을 주

장하며 오는 19일 열리는 정책협의 회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당 관계자는 "결국 야권이 연대하려면 총선 공천권을 나누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재보선은 지도부의 의지로 관찰할 수 있지만 총선의 경우 통합정당이 아니라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 이해찬 시민주권 상임대표를 만나고 단식 중단 후 요양 중인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상임대표를 방문하는 등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활발한 물밑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 측은 "손 대표의 물밑 통

합 활동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어서 말을 못하고 있다"며 "진보정당 간 통합 협상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대통합 논의가 활기를 띠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전대 시기와 성격을 둘러싼 당내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전대 시기의 경우 손 대표 측은 내년 1월로 미루는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다. 야권 통합 논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를 수 있는 데다 연말 대어 입법·예산 투쟁과 맞물린 시기가라는 점이다. 그러나 올 12월 전대가 어렵다면 차라리 11월로 앞당기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대 성격 역시 통합 전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통합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민주당만의 전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빛의만평

- 김중두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원...




초호화 여객선 스타크루즈와 함께 하는 특별한 제주여행!!

■ 제주 특가상품 (2박 3일) 95,000원~		■ 요금안내 (합숙기준)	
제 1 일	09:00 스타페리 전용버스	목포항 출발 / 제주항도착 제주 현지직원 미팅후 예코랜드기자여행 - 1800년대 증기기관차인 볼드윈기종을 모델화하여 영국에서 수제품으로 제작된 링컨기차로 30만평의 꽃자갈 원시림을 기차로 체험하는 테마파크 숙박 및 식사 숙소: 일반호텔	비고 중식:자유식 석식:호텔식
제 2 일	전 일 전용버스	조식 후 세연교/세션 외돌고-돌메낭골 올레 트레킹(약 1시간소요예정) 섬부작 테마농장 / 중식 해피타운(중국기예, 오토바이쇼) 로케티오월드/영화박물관(50년대중음) 필수 옵션: 더-파라크 숙소: 일반호텔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제 3 일	전용버스	조식 후 민.공예품 전시장 휴애리 생태공원/홍대지소 습마, 조림밭 체험 / 홍대지소 제주아트랜드(미술관, 분재원등) 민속보존마을/ 농수산물직매장 해녀촌 필수옵션: 삼국지랜드(변검소) 제주항 출발 / 목포항 도착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자유식

※ 상기일정 및 조건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번호: 농협 317-0002-3837-31(주)아름여행사
농협 352-0115-4438-33 예금주 이정우

목포MBC 해외문화탐방

5월 9월10일 **방콕파타야 w1,150,000원**

6월 9월11일 **코타키나발루 w1,250,000원**

유남해여행사 1588-7429

Arum (주)아름여행사 1577-0419